



박소현의 섹.시.토크

나의 심심치기 친구 S는 매우 심심한 입맛을 가진 삼십대 중반의 남성이다.

선호하는데 비해 아내는 강한 입맛만큼 자극적인 섹스를 원했다.

기행이라도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협하고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다.

평강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은 곧 그동안 그들 부부의 섹스패턴이 어퍼렸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동안 S의 노력은 뒤달까, 땀을 흘리고 고춧가루만 들입다 붓고, 짜게 한다고 소금만 계속 부는 행위였을지도 모르겠다.

S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아내가 원하는 자극이란 것이 대단한 노력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식성이야 몇 십 년을 고수한들 어떤가? 그러나 잠자리만은 몇 년간 같은 패턴을 고수한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자극적 입맛을 원하는 아내를 위해 오늘밤 손목 한번 묶어봐”

가? 내가 남편보다 정력이 많이 부족하냐? 수술이라도 해야 하나?’ 아내의 떨떠름한 표정을 대할 때 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봤다.

겠다고 토로하는 S, 그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아내의 손목을 묶어 봐.”

검색절정 키워드

수입차 알리온, 아반떼보다 싸다는데...

‘알리온’이란 자동차가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알리온은 토요타 자동차의 준중형 세단인 알리온이 비슷한 크기의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에 비해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이 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빨리 알리온을 수입해라, 당장 산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랐고 알리온이 어떤 차인지 검색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물리면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은 ‘몰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나 동영상은 찾는 네티즌도 많았다.



연기자로 데뷔하는 ‘광수생각’의 화가 박광수씨.

바둑 기사 박광수(67)의 기사. 제목: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백 바둑규 5단, 흑 김광식 5단. 기사 내용은 바둑판과 관련 설명이 포함됨.

바둑 기사 박광수(67)의 기사. 제목: 배 아픈 두점머리 5보(67~86). 기사 내용은 바둑판과 관련 설명이 포함됨.

바둑 기사 박광수(67)의 기사. 제목: 제3회 중환배 12일 대만서 개막. 기사 내용은 대만에서 열린 바둑대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뉴스퀴즈. 76. 메이저리그의 ‘살이있는 전설’인 이 선수가 미친대 미국 야구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8월 11일 피로아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개인 통산 756호 홈런포를 쏘아올려 이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였던 헵 아론의 종전 기록을 31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10일 (음력 6월 28일 丙子). 운세 정보: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각 지시에 대한 운세 설명이 포함됨.

더마플라스트 밴드. 피부 치료 제품 광고.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67>.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것 있습니까? A: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B: Yes, I have a camera. A: A gift? B: Yes. A: Let me look at the receipt, then. B: Here you are.

오하오우 니혼고 <967>. 自分(じぶん)で作(つく)ってみました.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A: 肉(にく)にまんじやないですか。うまそうですね。B: そうでしょう。自分(じぶん)で作(つく)ってみました。最近(さいきん)これを作(つく)るのが趣味(しゅみ)なんです。

니하오 쑹구위 <157>. 又要加班 또 당직을 서다. A: 这个周末去哪儿玩? Zhè ge zhōumò qù nǎr wán? B: 哪儿也不能去? Nǎr yě bù néng qù? A: 为什么? Wèi shén me? B: 又要加班。 Yòu yào jiā bān.

한자 이야기 <584>. 天生缘分(천생연분) 하늘 천, 날 생, 인연 연, 나날 분. 천생연분(天生緣分)은 하늘이 마련해 준 인연(因緣)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부부관계로 인간이 어찌 할 수 없음을 비유한다.